학생독립운동 90주년 전국적 관심 높여야

3대 항일운동 불구 초등교과서에 한 줄도 안실리는 등 소홀
90년사 발간·기념공간 조성 등 추진…남북 합동 연구도 필요
11월 3일 기념식 문 대통령 참석 예상…본격적인 준비 나설 때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고(故) 박기옥 선생의 포상(대통령표창)을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에게 직접 전달해 관심이 집중됐다. 박기옥 선생은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중이던 1929년 10월 나주역에서 일본인 학생들에게 희롱당했지만 당당히 맞서며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을 보여줬다. 박 선생이 지핀 불씨는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학생독립운동으로 발전했다.

학생독립운동은 3·1만세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항일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등학교 교과서에 단 한 줄도 실리지 않는 등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석달이 채 안 남은 90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전국적인 관심 조성과 함께 역사자료를 정비해 광주에서 촉발된 전국 규모의 독립운동으로서의 면모를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11월3일 정부 주관행사로 치러진다.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 이어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곳은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한·일 학생 충돌 지점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요인 경호 등 행사 진행에도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올해 90주년을 계기로 학생독립유공자 기준을 기존 '수형·옥고 3개월 이상'에서 '퇴학·제적'까지 넓히면서 학생운동 참가자들이 대거 독립유공자로 지정됐다. 지난해 436명이었던 학생운동계열 독립유공자는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521명으로 늘어났다.

학계에서는 실제 참가자에 비하면 자료 부족 등으로 유공자 지정 숫자는 턱없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독립운동에는 북한 포함 전국 320여개 학교, 5만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학적부가 남아있는 학교는 55개교 뿐이다.

또 당시 언론보도, 일본 자료에 따르면 북한지역에서도 100여개교 이상이 시위를 벌였지만 연구자들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남북 합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초·중등 교과서는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6월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중등 역사 교과서는 조선총독부 자료를 인용해 학생독립운동에 194개 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광주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국내외 320개교가 참여했던 것으로 판명난 만큼 신속히 정정해야 한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학생독립운동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없는 실정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올 90주년 행사에 북한 학생들을 초청하는 등 남북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조만간 '학생독립운동 90년사'(가제)를 발간하고 기념음악회 개최(10월27일 예정), 사적지 표지석 설치, 기념우표 인쇄 등 본격적으로 기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90주년을 계기로 100주년 이전까지 현 광주역 인근에 1929년 당시 광주역을 조성해 기념공간을 만들고, 항일지사들의 사랑방으로 불렸던 흥학관(동구 광산동)도 복원해 교육 장소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성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북한지역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민간차원에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념공간들과 연구를 바탕으로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후대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어린이들이 외치는 "대한독립만세"

15일 오전 광주시 동구 학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체험마당에서 어린이들이 태극기 모양의 풍선을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종교적 신념' 3년간 예비군 훈련 불참 30대 무죄 선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3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8차례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6년 4월부터 2년간 육군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2009년까지 예비군훈련을 받았으나 성경 공부를 시작한 이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군 제대 이후 2010년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해 침례를 받았다. 같은 종교를 가진 배우자를 만나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꾸준히 봉사와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류 부장판사는 "A씨가 성경 공부 시작 이후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 복무가 마련되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A씨의 행동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보는 것이 옳고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중병 고통 노부부 '안타까운 선택'

광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평소 중병으로 고통을 받던 노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14일 오후 7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한 주택에 A(80)씨가 옥상에서 숨져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주택 2층 방안에서 A씨의 아내인 B(75)씨도 숨져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 신체에서는 스스로 상처를 낸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됐고, B씨 인근에는 빈 화학제품 용기가 있었다.

경찰 과학 수사 팀이 현장 감식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각각 자녀 등에게 쓴 유서 형식 편지가 나왔다.

편지에는 "통증이 너무 심하다. 주변에 말도 못할 정도의 통증이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과 편지 내용, 유가족의 진술, 이웃 증언 등을 통해 치료가 쉽지 않은 중증 질환을 오랫동안 앓아온 A씨 부부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선거 당일 투표소서 주민에 인사한 군의원 벌금 90만원

항소심서 의원직 유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낸 보성군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성군의원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인 보성의 한 투표소 앞에서 약 20분간 주민들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거 당선 경험이 있는 A씨는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당시 다른 투표소에도 방문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다만 다른 후보 가족이 투표소 주변에서 인사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 후보나 그 가족도 투표소에서 인사를 건넸고 A씨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해남 달마산서 조난 50대 등산객 2시간 만에 구조

해남 달마산에서 50대 등산객이 발을 헛디뎌 다쳤으나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15일 해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달마산 8부 능선 등산로 주변에서 A(50)씨가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구조·구급대원 8명을 투입했다. 기상 여건 상 헬기가 이륙하기 어려워 직접 산을 오른 구조대는 이날 오전 11시25분께 A씨를 구조했다.

구조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남친이 잠자리 피한다며 알몸으로 난동 부린 20대 여성

쌍나팔

○…남자 친구가 잠자리를 피한다며 알몸으로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폭행 등 혐의로 경찰서행.

○…15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여·20)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원룸에 술에 취해 들어와 동거남 B(20)씨에게 잠자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알몸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는 것.

○…A씨는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옷을 입지않은 채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경찰은 "B씨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찰관을 폭행했으니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이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

임야

삽니다.010-6834-7400

※지분물건 환영, 신속처리※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67 창사67주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